

사설

“포교는 곧 교육”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창립에 기대

지난 18일 금산사에서 전국교사불자연합회가 창립된 것은 여러 모로 뜻깊은 일이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수많은 인연과 부처님의 가호가 있었다. 96년 여름방학을 맞아 조계종 포교원이 마련한 불자교사연수회를 계기로, 이듬해인 97년 지지사에서 열린 2차 연수회에서 불자교사들은 전국적인 규모의 모임을 조직하자고 건의했다. 8월 서울 경계 지역 교사불자모임의 창립을 시발로 광주 대전 등지의 불자교사들이 연대를 확대해 나갔다. 이들의 결실이 모여 새해 벽두 마침내 전국적인 교사불자회의 결성을 보게 된 것이다.

포교원장 성타스님은 축사를 통해 미래불교의 희망인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불자회 활동에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스님은 “과중한 학업과 가치관의 미정립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이화여교의 임완숙 선생은 인사말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위기는 부분별한 서구사상과 서구종교의 도입으로 인한 민족정신 말살과 뿌리없는 교육의 결과라고 전제하고, 도덕불감증과 극도의 이기주의를 극복하여 ‘더불어 사는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 교사불자들이 합심 노력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바다로 흘러드는 혼탁한 강물을 맑게 하려면 강으로 흘러드는 시냇물을 맑여야 하듯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가슴에 보리(菩提)의 싹을 피우는 일이야말로 이 사회 이 나라를 구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불교계의 기대속에 창립된 교사불자연합회는 명실공히 청소년 포교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종단 또한 이 점을 인정하여 교사불자회를 포교원의 직할단체

로 두기로 했다. 이로써 교사불자연합회가 미래 청소년 포교의 중심으로 종단의 전폭적 지지를 받을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연합회는 교사들의 인격도야와 친목도모, 사찰순례를 통한 전통문화 애호, 포교자료 개발 및 간행, 그리고 민족정기회양을 위한 바른 교육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불자교사들은 전문적 종사자라는 점을 자각하고 “포교는 곧 교육”이라는 사명감을 투철하게 갖기를 기대한다. 일반 포교사들이 불교 교리나 신행 그리고 의례에 치중한다면 교사불자회는 청소년 교육의 현장에서 불교적 사유와 연속성을 발굴하고, 또 교육에 있어서 불교적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본격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에 종단과 신행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종단은 필요한 행정과 재정을, 그리고 신행단체들은 혹 불거질지도 모를 학교 내의 타종교 집단과의 불필요한 소모와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 각 분사와 말사의 사찰과 그 부속물들을 청소년 수행과 심신도야의 도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배가해야 한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교사불자회는 불교 본연의 수행과 신행을 엄정하게 닦고 지켜나가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수행의 깊이와 정신적 지도력이 없다면 청소년 포교는 모래 위에 지은 누각일 뿐이다. 오계(五戒)를 정갈하게 수지하고, 예배와 독경에 게으르지 않으며,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을 통해 교사불자회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잠재적인 신도들을 그 품으로 끌어들이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은 어른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자라난다는 점을 교사불자회는 다시금 새길 것을 당부한다.

명예포교사제 도입 스님전산교육 실시

포교원

교육원

조계종 포교원·교육원 을 주요사업 발표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20일 신도교육의 해 사업의 주도로 실시 등 올해 추진할 9개항의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포교원의 올해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신도교육의 해 사업을 주도로 실시, 종단의 신도교육 및 양성의 틀을 다짐 △포교행정 체계의 강화 △군포교 활성화 및 신행단체 지원 및 관리 강화 △청소년사업 대폭 강화

‘교과서위원회’ 구성키로

조계종포교원 초중고 교육과정 개편대비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2 천년부터 시행될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대비해 (가칭)교과서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포교부장 원혜스님은 20일 교과서위원회 구성 방침을 밝히며, 위원회에는 교법사단과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중국대 사범대학 교수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초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원혜스님은 새로 개편되는 교육과정에 쓰일 중·고교 불교교과서 집필은 교법사단이 맡으며, 기존 초·중·고등학교 각종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왜곡과 미흡한 기술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부분은 전국교사불자연합회에 담당토록 한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교육과정은 2000년 초등교육을 시작으로 2001년 중학교, 2002년 고교 과정에 적용된다.

종단마다 정책투명화 ‘바람’

조계·태고·진각종등 사업계획 일반공개

조계종, 태고종 등 각 종단이 신년사업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서면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종단정책 투명화’가 새로운 풍속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조계종 정책 공개는 종단발전 및 중무행정 효율화 차원에서 발전적인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조계종은 총무원이 13일 5대 기조 6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급년 중무계획을 밝히며 정책과 시류를 반영한 운영방침을 천명했다.

12일 진각종 성초 총무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복지사업 등 올해 사업계획을 내놓으면서 종단구조 개혁의지를 밝혔다.

태고종 역시 19일 인곡 총무원장 기자간담회를 통해 종단 사업방향을 제시했다. 동방대건립과 분규정립 등 9개 주요사업계획을 밝힌 인곡스님은 “주요사업계획 외에도 조직개편 및 승려의식 개혁 등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라며 종단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를 승려 자질향상을 위한 원년으로 삼겠다”며 종단 체질개선 의지를 밝혔다. 사업계획으로는 제7차 국제불교학술대회 개최 및 총본산 묘각사 복원공사, 천안 불명사 소재 교육원 4월 완공 등을 제시했다.

총지종은 16일 총지와 통리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포교, 사회복지 등 7개 분야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총지와 통리원장은 “종단홍보와 밀교학전 분야에 주력할 생각이며, 이와 관련한 출판사업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종단 외에도 원음종, 원효종, 일봉선교종, 미타종 등 7개 종단이 사업계획을 내놓으면서 체계적인 계획아래 종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기존 질서나 체계를 벗어난 새로운 방향을 투명성과 책임성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 일정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명예포교사제를 시행하여 포교활동에 공적이 있는 국내외의 불자를 종단의 포교자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대상에는 종합학교 교장, 저술을 통해 불법을 홍보한 사람, 포교원력이 있는 한속자, 해외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불자 등이다.

교육원 원장은 올해 사업방향을 ‘승가교육의 내실화’로 정하고 전통교육과 현대교육의 조화를 통한 승가교육체계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교육원이 20일 발표한 주요사

업은 모두 14가지로 대부분 지난해까지 펼쳐왔던 종단교육체계 및 승가위계 확립과 관련된 것들이다. 올해 새롭게 실시될 사업으로는 스님대상 전산교육과 선원사, 청규, 역대선사행장 등을 묶은 <선원총람> 발간을 2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한편 <삼국유사>를 현토본으로 간행해 승가대학원과 기본교육기관 교재로 활용토록하고 전국 대학도서관에도 배부할 방침이다. 또 올 3월 열릴 14기 행자교육원부터는 종전 교육후 평가에서 입찰 행자고시를 치르기로 했다. <정성운·한영우 기자>

“방송광고공사 폐지 재검토해야”

BBS 성낙승사장 주장

대통령직 인수위의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공사) 폐지 검토, KBS MBC 등의 공사 폐지 주장 등 공사 존폐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자 불교방송 성낙승 사장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사의 생존 필요성을 역설했다.

성사장은 우리 광고시장의 환경과 구조는 서유럽과 유사하기 때문에 인수위 측이 주장하는 미국식 시장경쟁제리 도입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사가 없다면 생길 문제점으로 △방송의 공공성·독립성 훼손 △특수방송 및 지역민방의 존립기반 약화 등 8개항을 지적했다.

종교방송 3사는 조만간 사장단 회의를 갖고 공사 폐지에 대해 협력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번 존폐논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천태종 학술회의

천태종교문화연구원(원장 이재창)은 20일 타워호텔에서 ‘현대사회와 천태사상’을 주제로 제1회 학술발표 천태종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천태종 전문덕 총무원장, 원음종 승보인 총무원장, 총지종 총지와 통리원장, 한국불교 법학종 김광태 총무원장, 한리당 김호일 의원, 자민연 이양희 의원, 동국대 서윤길·권기종 교수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BBS-btn 제휴설 사실 아니다”

불교방송노조, 불교TV에 사과 요구

불교방송 노동조합(위원장 신창현)은 최근 불교TV가 보도를 통해 불교TV와 불교방송이 각종 교류에 합의한 것처럼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불교TV에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해당 뉴스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보도 자체 담당 △교계 일부 다른 매체의 동일 보도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을 밝혔다.

노조측이 문제된 삼은 부분은 16일 불교방송 사장 성낙승씨가 취임인사차 불교TV 사장 정우스님과 상견례 자리에서 나온 대화내용이다. 이에 대해 불교TV 사장 정우스님은 “불교방송과 불교TV가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나운서·방송자료 교류를 생각했고, 비록 구체적인 방안까지 진행되어 실무진이 구성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노조

의 반응은 상상 밖이다”고 괴렷했다.

이에 반해 불교방송 사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 불교TV 이태행 방송전문위원에게 신중한 보도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아나운서·방송자료 교류에 대해 좋은 생각이라는 것에는 공감했지만 선불리 합의할 사안도 합의한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중앙신도회를 예산 4억7천만원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 송재건)는 20일 서울종동 신도회회의실에서 제3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4억7천1백만원(임대료 1억7천만원 포함)의 올해 예산을 통과시키고, 사업으로 △창립 1주년 기념법회 △봉축의 밤 및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

△수련대회(년 2회) △회보발간(월간) △미조직 분말사 신도회 창립 돌려 및 지원 △대의원 총회 △회장단 수련대회(년 2회)를 실시키로 했다.

중앙신도회의 지난해 결산액은 4억1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송회장이 3억7천만원(임대료 1억5천만원 포함)을 기부금 형식으로 출연했다고 신도회사무국은 밝혔다. 재정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적립하고 있는 부회장 및 이사 등의 임원회비는 19일 현재 3천1백만원이다.

현대만평

현대의 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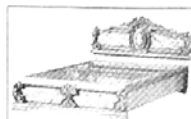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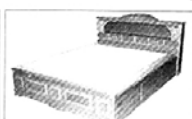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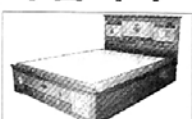


“스님, 힘을 주세요”

두께 3cm의 황토타트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실입니까?
맥반석 돌침대보료가 69만원이라는게?

올겨울엔 맥반석 돌침대로 효도하세요!
돌침대는 꼼꼼히 따져보고 고르셔야 합니다.

			
159만원 MS-220	167만원 MS-210	187만원 MS-201	197만원 MS-370

돌침대 전문생산업체 (주)한국엠에스피는 IMF시대에 과도한 유통미진을 없애고 돌침대가격의 가격피해를 이룩한 정직한 기업입니다.

비취옥방 전문대리점 모집

- | | |
|---|---|
| 창업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황에도 든든수 있다. — 투자액의 10%이상 벌어야 된다. ● 독립품목이어야 한다. — 경쟁품목이면 시장이 흔들린다. ●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없다. — 재고 100% 반품가능 ● 점주는 관리만 하면 된다. — 영입판매 관리 100%본사지원 ● 본사가 든든하다. — 세계 최대 천연옥 광산 국내 독점계약 | 개설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품목 — 본사선 정맥맥석 비취옥방돌침대 천연옥관린상품 ● 개설지역 — 전국시·군·구 (지역상권보장) ● 담보 5,000원 15명 이상 매장보유가능자 (월수익500부정) ● A/S보장 및 본사에서 전국 지역 직접 배송 |
|---|---|

SUNSTONE 청맥맥석은돌침대 TV·라디오광고중 (株)韓國 MSP (Moral Stone Resource Korea Co., Ltd.)

● SBS-TV 한성교의 좋은 아침(월) ● MBC-AM양희정의 트로트 기요연별(15.24)

● 서울 지점: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6-9 ● 전화: 02-547-2547 ● 팩스: 02-547-0349 ● 부산 지점: 부산 중구 동래동 1가 251-1 ● 전화: 051-444-4444 ● 팩스: 051-444-4444 ● 대구 지점: 대구 중구 동大街 1가 17-1 ● 전화: 053-589-1141 ● 팩스: 053-589-1141 ● 인터넷: http://www.sunstone.co.kr

성남문의 (02)547-2547

737-8881